大學 自律化의 再吟味

仁川大 學長 閔 丙 岐

I

大學의 使命과 그에 따른 機能은, 일반적으로 知識의 獲得과 傳達, 그리고 應用으로 대표되는 硏究, 敎育, 奉仕를 들게 된다. 이를테면 基礎硏究와 敎養敎育 등 硏究와 敎育을 주로 하는 自律的 機能(autonomous function)과 應用硏究 및 職業敎育, 그리고 社會奉仕를 그 대상으로 하는 大衆的 機能(popular function)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傳統的 意味에 있어서의 大學은 社會·文化的 體制의 保存과 變革, 즉 自己持續의 욕구와 함께 創造的 變革의 兩面性을 조화시키면서 성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大學의 社會·文化的 體制의 保存과 變革이라는 兩面性은, 本質的으로 相衝的인 對立槪念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變革은 現實의 파괴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데 반하여, 保存은 變革의 거부에서만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동시적 추구는 사실상 矛盾되는 의지이지만, 中世의 大學理念, 다시 말해서 大學을 창설했던 價値 指向性은 바로 이와 같은 矛盾 위에 서서 출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의 첫 출발은 자체의 內在的 갈등 또는 大學의 二重的 自己矛盾을 그 후에까지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世 大學의 變革意志와 保存욕구의 併存은, 사실상 大學으로 하여금 統合機能 遂行에 따르는 論理를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를테면, 大學으로 하여금 變革을 추구하되 現實의 保存 위에 서게 했고, 現實의 保存을 지속시키면서도 變革의 열망을 포용하게 하는 장으로 存在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大學은 自由知性의 도장이어야 하고, 社會發展의 現實的 產室이어야 하며, 社會의 價値를 保存하는 보루로서 批判과 統合의 機能을 함께 맡아야 하는 광장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大學의 本質的 價値와 그 역할은 마침내 消費文化的 人間意識을 조성하고 있는 後期 產業社會的 속성의 침투에 의하여 그 方向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테면 大學敎育이 종래의 소수 엘리트敎育으로부터 就業爲主의 大衆敎育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大學敎育의 質的 變化는 필연적으로 「學問을 위한 학문」의 探究가 아닌, 高度 產業社會의 現實的 욕구에 맞추어 나가는 實用主義(pragmatism)의 경향을 수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後期 產業社會에 있어서의 就業 위주의 知識獲得에 몰두하는 反知性的인 경향은 필연적으로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판단력을 가진 知性人보다는 機會主義的이고 現實主義的인 性品을 가진 大學人을 배출할 우려를 안게

된 것이다.

Ⅱ

특히 겨우 100여 년 전후의 近代社會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大學이, 그 짧은 歷史와 安保的 특수 여건 내지는 對內外的인 制約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창성이나 自律性을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外國의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大學은 西歐의 先進文明을 습득시키는 啓蒙主義的인 機能에 大學의 비중이 두어졌고, 官學은 일차적으로 고급 公務員의 확보라는 측면에 치중되었으며, 私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建學理念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時代的 與件에 의하여 自由知性의 深奧한 發展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그 시발점에서부터 自然發生的으로 소규모의 知識人集團에서 비롯되었던 西歐의 大學發展과는 달리 外部의 어떤 강한 의도와 동기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우리의 大學은, 그만큼 自律性과 自己選擇의 폭이 비교적 좁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社會가 大學에 걸고 있었던 기대는 다른 어느 社會보다도 한결 큰 것이었다. 요컨대 社會는 大學을 民族獨立의 實利機關이기를 바랬고, 國家發展 核心機關이기를 희망하였으며, 그리고 民族統合의 價値機關이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청과 기대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大學과 社會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더우기 大學은 民族과 歷史 그리고 國家 속에서의 自己機能의 한계 때문에 內外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大學은 大學內外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變化와 요청에 의하여 특히 그 使命과 機能에 대한 理念的 再定立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간에 國家와 社會의 發展에 절대적인 역할을 맡아 온 우리 大學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自律的 機能과 大衆的 機能 사이의 理念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相互補完的인 共存의 論理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大學은 象牙塔으로서의 超然性을 지키느냐, 아니면 社會奉仕機關으로서의 效用性을 택하느냐의 극단적인 兩者擇一의 論理를 버리고 大學 본연의 眞理探究와 社會奉仕의 기능이 조화롭게 共存할 수 있는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合機能을 수행하는 大學에서의 自律權은 大學人들이 享有하여야 할 學問의 自由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自治能力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對外的 간섭이나 위협의 배제 내지는 學內의 모든 문제는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合理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自治能力의 확립이 없이는 大學에서의 自律은 설 땅이 없겠다는 것이다.

大學은 본래 學問을 연구하는 전당이고, 따라서 學問의 硏究에는 필수적으로 自由가 보장되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大學이 요구하는 自由는 무제한적이거나 超國家的일 수 없으며, 더우기 國家目標나 利益에 背馳되어서도 안 된다. 大學은 어디까지나 國家 안의 존재이며, 國家는 敎育과 學問을 大學에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國家는 大學의 自由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大學은 국가의 利益에 부응하거나, 적어도 그 目標에 상충되지 않도록 그 機能을 수행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요컨대 大學은 國家의 存立을 전제로 하여 그 성립이 가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國家는 大學의 外的 自由는 물론 科學的 硏究와 眞理의 探究 내지는 思惟의 內的 自由까지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大學이 누려야 할 自由는 國體와 政體를 紊亂케 할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곧 大學 자체까지도 存立 기반을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겠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 大學이 學問에의 自由와 自治能力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對內·對外的 問題에 대한 統合機能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時代精神과 歷史意識을 집결시켜야 한다.

大學이 그 獨自性과 自律性을 확립하여 안팎의 요구를 主體的인 選別에 의하여 그들을 함께 統合시킴으로써 學內外가 같이 수용하고 共存할 수 있는 理念과 價値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大學 밖의 부당하고도 무리한 요구나 不合理한 요청에 반대함과 동시에 그 不當性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大學만의 맹목적이고도 理想的인 요구에 대해서 現實이 얼마나 냉혹하고 實質的인가를 알게 해 줌으로써, 그것이 반용에 이

른 수 있음을 단호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大學人들이 政治運動에 직접 간여하여 校門 밖으로 나간다면, 반대로 外部의 政治勢力도 學內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大學人들의 內訌과 같등은, 그것이 곧 共産勢力에 逆利用되거나 政治勢力의 침투 구실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컨데 大學人들이 社會로 나갈 때는 「奉仕」나 「變革」이라 하고, 社會가 大學內部 일에 간섭한다면 「象牙塔」이나, 「學園의 神聖」이라고 말하는 一方通行式 論理는 大學의 自律性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위해로운 것이 아닐 수 없겠다.

大學에서의 自律性의 확립과 그것을 보장하는 自治能力의 함양은, 모든 大學人들이 大學의 本質的인 위치로 복귀함으로써 가능하다. 大學에로의 복귀란 낭만적인 大學社會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大學의 의연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民族社會의 궁극적인 支柱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자기 위치의 확립은, 무엇보다 對外的 獨立性의 유지와 함께 主體的인 自己意識의 定立, 즉 大學의 自律性의 정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Ⅲ

大學의 自律性과 自治能力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大學人들의 확고한 자세와 意志가 긴요하다. 최소한 한 나라의 知性을 대표하는 大學人들은 극단적인 黑白論理를 버리고, 모든 意思表示나 行動은 合法的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大學人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自由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自律이기 때문에 모든 주장과 표현은 自由스러우면서도 法秩序나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하여 大學人의 使命과 본분에 충실하면서 國家와 世界 그리고 人生을 전체로서 바라보고, 學問과 藝術, 倫理, 宗敎, 政治, 經濟 등 모든 분야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 넓은 시야를 가진 大學人으로 存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勉學 분위기를 조성하고, 大學의 質的 向上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學問別 專門分野의 硏究가 보다 深化되어야 한다. 고도의 産業化와 그에 따른 社會問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分野의 專門知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深奧한 學問의 硏究는 그 자체가 文化的 價値의 훌륭한 實現인 것이다.

大學이 本然의 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院 敎育이 本軌道에 올라야 하고 大學에 부설된 각종의 硏究所가 보다 活性化되어야 한다.

大學院 敎育과 硏究所의 活性化는 大學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나, 社會發展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大學의 自律化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學問領域의 擴大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믿고 싶은 것이다. *